

[TV]

TV 11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Program Name, Time, Description, and other details for various TV channels like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송강호, 개런티 5억 전액투자한 진짜 '괴물'

1천만 돌파 고지 앞둔 영화 '괴물'의 숨은 공로자

"모두 관객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의 날마다 애정이 '괴물'의 흥행을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일 밤 어렵사리 전화 통화에서 성공한 송강호는 '괴물'의 1천만 흥행의 공을 모두 관객에게 돌렸다.

울산에 머물며 한재림 감독의 '우아한 세계'(제작 루비필름)를 촬영 중인 송강호는 '괴물' 흥행에 대한 축하 인사에 "한국 영화 발전의 주역은 관객이다. 물론 많은 훌륭한 감독이 있고, 산업적으로 제작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한국 영화가 그만큼 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신 덕분"이라고 차분히 말했다. '괴물'의 드라마를 책임진 또다른 '괴물'은 역시 주인공 송강호다. 그가 연기한 평범하다 못해 다소 모자라고 답답한 소시민 박강두는 '괴물'이 단순 괴수 영화에 머물지 않게 한 일등공신이다.

송강호는 박강두를 연기하며 한동안 주춤



했던 "왜 송강호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괴물'은 박강두의 충격과 고통, 분노와 슬픔, 용서와 카타르시스를 통해 전개되는데, 이 같은 미세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는 송강호에게 가능하다.

연기를 잘해준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는 그는 연기에 앞서 '괴물'의 제작 자체를 가능하게 한 숨은 공도 있다. 결과론적으로 '괴물'이 1천만 흥행작이 됐지만, 사실 제작 초반만 해도 '괴물'은 투자를 잘 받지 못했다.

봉준호-송강호 조합임에도, 괴수 영화 장르라는 점에서 순제작비 11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은 험난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사 청어람은 배급권마저 소박스에 넘겨야 했다.

바로 그때 송강호가 대한민국 배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다. 개런티 5억 원을 전액 투자로 돌린 것. 그것은 '괴물'이 관객 500만~600만 명을 모으지 못할 경우에는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송강호, 그가 바로 '괴물'인 이었던 셈이다.

Living TV advertisement for '트레드 바타의 아웃도어필살기' (Tread Bata's Outdoor Kill) featuring kayaking and outdoor activities.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agents.

케이블·위성TV 11월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SBS, EBS, and others, with columns for channel, program name, and time.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

PBC 광주광역시방송 (PBC Gwangju City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

TBN 교통방송 (TBN Traffic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

BBS 불교방송 (BBS Buddhist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